



파월이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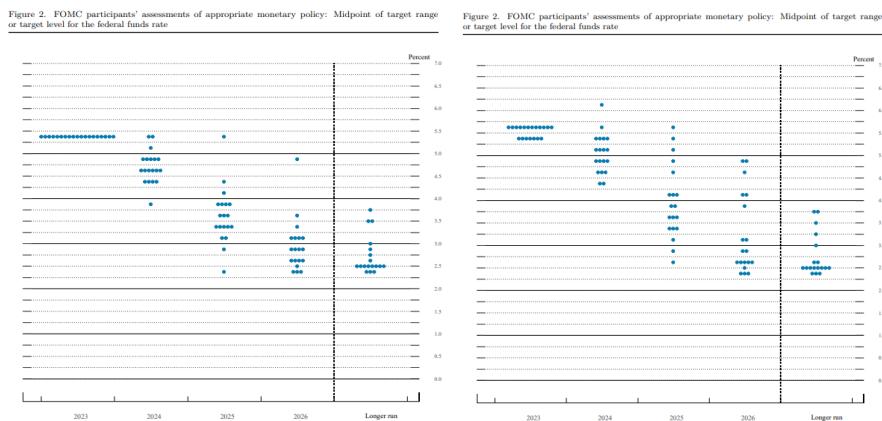
12월 FOMC 점도표에 공개된 내년 인하 폭은 75bp, 9월보다 50bp 추가 하향. FOMC 직전 채권시장은 내년 4회 인하 기대 반영, 기준보다 점도표가 추가 하향되었지만 여전히 기대와 점도표 사이 괴리가 있어 파월의장의 스텐스가 중요했음

파월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기대 통제에 신경 쓰지 않음. 금리가 사실상 고점에 도달했으며, 적절한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부분이 dovish하게 해석. 여기에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리세션 없이 금리인하가 가능함을 시사. 12월 경제전망(SEP)에서 올해 성장을 전망을 상향하고,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을 하향한 가운데 실업률 전망을 유지한 것은 이러한 파월의장의 생각을 뒷받침

기대보다 dovish했던 파월의장 스템스에 채권시장은 연준 스템스보다 앞서가는 듯.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내년 3월부터 인하가 시작되어 연내 6회 인하하는 기대까지 반영. 미국채 10년, 2년 금리는 각각 전일대비 18bp, 29bp 하락하며 역전폭을 축소. 10년물의 경우 4.0%까지 하락하며 10월말 고점 대비 100bp 하락. 달러인덱스도 전일대비 0.9% 하락하며 103pt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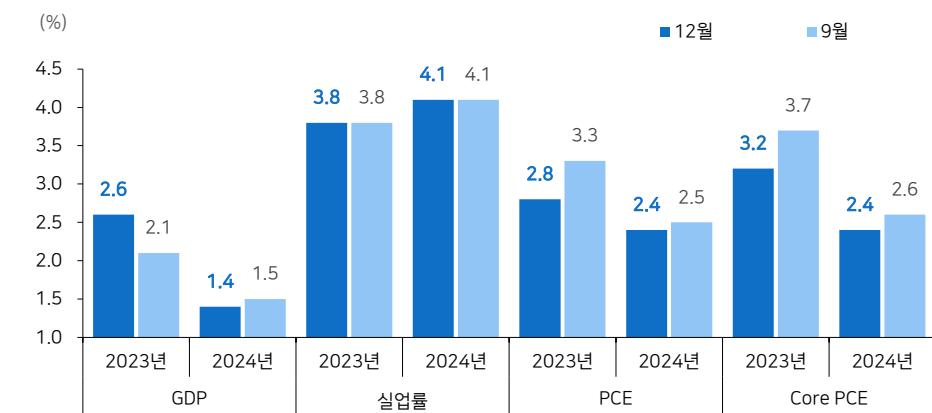
주식시장은 연고점 경신 가운데 색깔 변화 이어지는 중. S&P500은 전일대비 1.4% 상승하면서 4,700pt 돌파, 2022년 역사상 고점까지 +1.9% 남음. 어제는 소외 업종(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수익률 아웃퍼폼. 뒤이어 금융, 경기소비재, 에너지, 소재, 산업재 선전, 기술주는 가장 약했음. 여기에 중소형주도 선전, RUSSELL2000 지수는 전일대비 3.7% 상승

그림1 12월 FOMC 점도표 vs 9월 FOMC 점도표



자료: Federal Reserv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12월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EP)



자료: Federal Reserv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